

- 주요 뉴스: ECB 주요 인사들,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일부는 속도 조절을 주장
 - 엘런 미국 재무장관, 견조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둔화는 미국경제에 긍정적
 -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미국 경제학자들의 52%는 올해 미국 경기침체 예상
 - 일본은행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개 및 정부측 참석자가 회의 일사중단 요청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내주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정책 전망 등에 주목
 주가 상승[+1.2%], 달러화 보합[+0.0%],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 실적 발표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침체 우려 완화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ECB, 일본은행의 상이한 정책 전망 기대로 보합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하락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으로 상승
 독일은 ECB의 추가 큰 폭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28.67원, -5.7원) 0.5% 하락, 한국 CDS 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1/23일	1/20일	전일대비			1/23일	1/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19.8	3,972.6	1.19%	국채금리 10y	미국	3.51%	3.48%	3bp
	유럽	454.49	452.12	0.52%		독일	2.21%	2.18%	3bp
	중국	휴장	3,264.8	-		영국	3.36%	3.38%	-2bp
	일본	26,906	26,554	1.33%	CDS 5y	한국	40bp	41bp	0bp
	한국	휴장	2,395.3	-		중국	51bp	52bp	-1bp
환율	달러지수	102.02	102.01	0.01%	위험지표	EMBI+	-	367	-
	유로화	1.0872	1.0856	0.15%		VIX	19.81	19.85	-0.20%
	엔화	130.67	129.60	-0.83%		WTI유	81.62	81.31	0.38%
	위안화	휴장	6.7927	-	원자재	구리	425.7	425.2	0.12%
	원화	휴장	1,235.5	-		금	1,931.0	1,926.1	0.2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주요 인사들,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일부는 속도 조절을 주장

- 2/2일 ECB의 '23년 첫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는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ECB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인 속도로 상당 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한편 ECB 이사인 페테르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향후 두 차례 이상 50bp씩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지난 2개월간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부연
- ECB 정책위원인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도 2월과 3월에 금리를 50bp씩 인상해야 하며, 5월과 6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기엔 아직 이르다고 강조
- 반면 아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시장 변동성, 라우 전쟁, 침체 우려 등에 비추어 인플레이 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므로, ECB는 경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 역내 경기를 고려해 금리는 보다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 이나치오 비스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다 점진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임금-물가 쌍순환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과소 긴축보다 과대 긴축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미국 경제학자들의 52%는 올해 미국 경기침체 예상

- NAB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경제학자의 52%가 연말 이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전망. 3%는 이미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응답.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으로 경기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가계지출 감소, 기업 고용 축소도 침체 요인

■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준의 MBS 출구 전략 논의 필요성 강조

- 1월말 임기 종료 예정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연준이 MBS 시장 출구 전략을 계획해야 하며 향후 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 연준 인사들은 MBS가 아닌 국채만을 중앙은행 B/S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

■ 엘런 미국 재무장관, 견조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둔화는 미국경제에 긍정적

- 엘런 재무장관은 에너지 가격, 선박 비용,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망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6개월 이상 긍정적 소식이 있었다고 발언. 렌트비도 향후 6개월 이상 하락이 예상되면서 인플레 둔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또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한 수준이며 서비스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 조짐들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견조한 노동시장과 인플레 둔화 지속은 미국경제에 매우 희망적 조짐이라고 평가

■ 일본은행,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개 및 정부측 참석자가 회의 일시중단 요청

-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50bp로 확대했던 작년 12월 회의에서 정부측 참석자가 회의 일시중단을 요청하면서 회의가 37분간 중단. 정부측 요청에 따른 회의 중단은 기후변화 대응 오퍼레이션 도입을 공표한 '21.6월 이후 18개월만
- 한편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결정과 관련해서 한 위원은 시장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개선 정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 다른 위원은 동 조치가 금융완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정책 전환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

■ 분데스뱅크, 독일경제는 우려보다 더욱 견조한 흐름을 유지

- 분데스뱅크는 월간 보고서에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공급 병목현상이 점차 해소되면서 독일경제가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욱 견조하다고 평가. '22.4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 12월 전망보다 개선된 점에 주목

■ 일본은행, 공통담보자금공급 오퍼레이션 실시를 발표

- 일본은행은 국채, 회사채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는 '공통담보자금공급 오퍼레이션 실시를 통보. 기간은 5년이며 대출 예정액은 1조엔. 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한 유동성이 국채 등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에 일본 국채금리 하락, 달러/엔 환율 상승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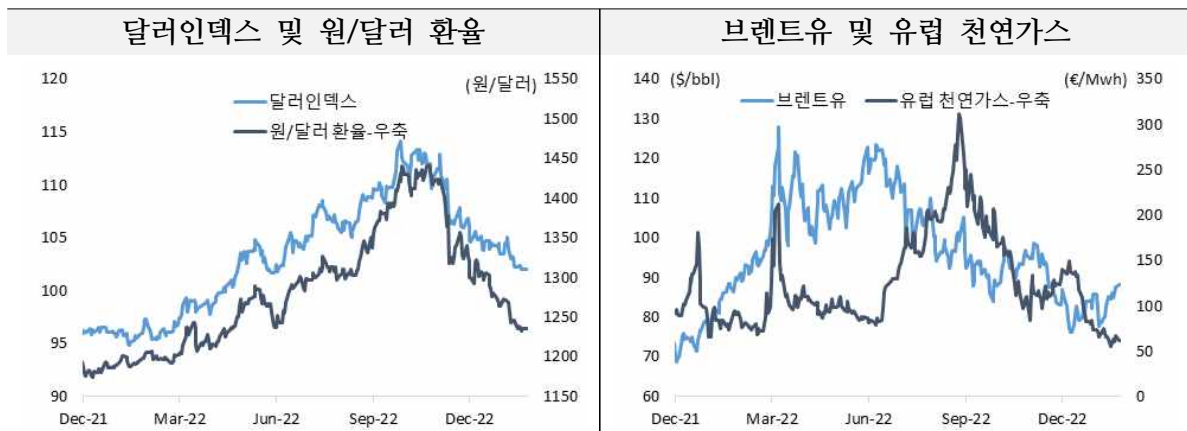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1/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및 유로존 1월 S&P 제조업·서비스업·종합 PMI, 일본 제조업·서비스업 PMI, 독일 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등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